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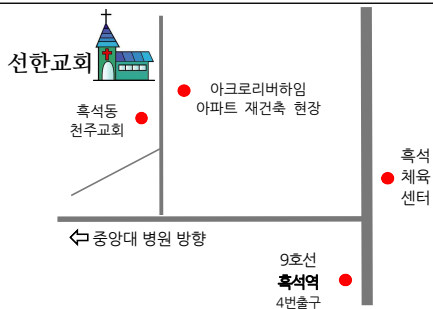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 리 아 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전 1:00 드 보 라 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 스 더 회 오후 1: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권 인 혁		이금주 (M국)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장 로	조 윤 익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김 대 희		
	박 희 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유 신 웅		(2호) 세종 선한교회
	한 배 선		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이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딤후 2:1)

Be Strong In The Grace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기도회 참석 서로 돌아보기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 송 구 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24)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6장 (통일찬송가 14장)
교	독 문	교독문 2번(시편 2편)
찬	양 과 경 배	546장 (통일찬송가 399장)
예	배 기 도	박희태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씀 봉 독	고린도전서 16 : 13~14
설	교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박영근 손영삼 심인섭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나는 믿네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 씬 봉 독		배반의 저편		(사무엘하 3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심 방	대심방을 2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게시판 일정을 보시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 서 사 역 조 정	1월 28일(주일) 예배 후 / 각 자치회 회장 및 교회학교 부장 / 안디옥실	
3. 기부금 영수증 신청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에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중 국 어 예 배	시간 : 주일 오후 4시 장소 : 안디옥실	
5. 매 일 성 경 강 론	주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6. 예 배 준 비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 및 정 리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도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분당셀입니다.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7년 성경강론 범위						
1/21	1/22	1/23	1/24	1/25	1/26	1/27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4장	사무엘하 5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찬송 : ‘나의 믿음 약할 때’ 374장 (통 423장)

본문: 히브리서 3장12~14절

말씀 :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것을 가장 악하다고 봅니다. 무엇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또한 죄를 이기게 하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옛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는 방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 및 제사제도, 할례제도, 정결예식 등의 모세 율법에 얽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 중에도 다시 옛 언약의 필요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히브리서가 쓰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무한한 은혜와 용서가 있으니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새 언약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알려줍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히 9:14)”라고 말합니다. 이는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을 이기는 역사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를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드러내며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가장 간절하고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로 보건대 죄의 유혹은 새 언약의 주인공이시며 죄 사함과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멀어지도록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삶, 안일한 삶, 특히 주님을 기억할 틈도 없이 매일 바빠지는 삶 등은 이미 죄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끝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 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 상태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죄를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 새 언약을 믿다가 죄의 유혹에 속아서 다른 것을 믿게 된 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강박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제목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고전16:13-14)

서론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1. 교훈

- (1) 깨어라
- (2)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 (3)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본론

2. 실천

- (1) 모든 영적 도구(예배 말씀 기도)를 사용하여 깨어 나자.
- (2)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강건해 지자.
- (3)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자.

결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박희태	한배선
헌 금 위 원	박영근 손영삼 심인섭	서진화 심지숙 안현미
안 내	상도셀	분당셀

매일 성경 강독		죽음을 부른 죽음의 보고		날짜 : 1월 22일	
찬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가 80장/통일 찬송가 101장)			
통독		사무엘하 1장			
본문 내용		사울의 진에서 도망쳐 나온 아말렉 소년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알립니다. 다윗이 자세히 묻자 소년은 쫓겨 도망하던 사울을 자신이 죽였음을 고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기름부음 받은 왕을 죽인 연고로 이 소년을 죽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할 노래’를 짓고 이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도록 합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이 노래는 길보아 산에서 죽은 두 용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두 용사의 용맹을 추억하며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기					
1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애가 (1) 아말렉 소년으로부터 이스라엘 패전 소식과 사울 및 요나단의 패전 소식을 접함 (2)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허위보고한 아말렉 소년에게 사형을 명함 (3)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함 (4)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거짓을 좇는 자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멸망의 덫에 걸린다. (5) 사울의 단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장점을 부각시킨 다윗의 인품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성숙한 성품이다.			
핵심 단어		1:14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허위 보고한 아말렉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이다. ‘손을 들어’에 해당하는 ‘리실로아흐 아데카’에서 암시되듯이 ‘손을 내뻗는’ 것은 곧 칼로 상대방을 치는 행위를 뜻한다. 그런데 본절에서 이 표현은 객관적인 행동 그 자체를 묘사하기 보다는 문맥상 ‘고의적인 살인’을 의미한다. 즉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판단’대로 살인을 저질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신앙의 양심을 따르십시오”
찬양과 기도	나의 안에 거하라 / 주 예수 보다 더 (94장/통 102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성경은 부정하고 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레 11장). 이 규례에 따라 유대인들은 엄격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속한 문화와 전통이 다양하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해 유대인들이 따랐던 규례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세례를 받기 전에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과 축구 경기를 보지 않겠다는 두 가지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술과 담배를 멀리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도로서 자신이 즐겨하던 것들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의지와 현실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각자가 속한 문화와 전통이 반영된 것으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회에서는 용납되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시대와 문화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 버려야 할 것과 좇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내가 결단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고린도전서 10:23~11:1	
묵상포인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를 바르게 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먼저 신앙의 양심에 거리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비춰 거리가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지체나 불신자에게 주게 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형제가 실족하거나 불신자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중요한 원칙을 무엇이라 제시하나요?	
적용하기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내가 절제하기로 결단해야 할 자유는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어디에서든 먹고 마시는 일에 덕을 세우게 하시고, 제 삶이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다윗, 하나님이 세우신 왕	날짜 : 1월 26일
찬양 통독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가 461장/통일 찬송가 519장) 사무엘하 5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왕을 삼습니다. 다윗은 삼십 세에 왕이 되어 사십 년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칠 년 육개월을 유다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의 집을 짓게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치러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생각해보기			
1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왕 즉위 (1)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드디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함 (2) 다윗은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통치하고 이후 3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함 (3) 여부스 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통일 왕국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옮기고 다윗성을 건축함 (4) 블레셋의 두 번에 걸친 공격에도 연승을 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축출함 (5)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안전한 삶과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핵심 단어	‘만군의 여호와’ 로 번역된 ‘에호와 체바오트’ 는 삼상 1:3에 처음 언급된 말로서 사무엘서와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에 자주 등장한다. ‘만군’이란 뜻의 ‘체바 오트’ 는 천사들과 별들과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 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무한한 자원과 힘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쓰였다. 또한 전쟁의 상황에서 ‘만군의 하나님’ 이라는 명칭은 ‘군대의 하나님’ 내지는 ‘전쟁의 하나님’ 이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적들과 전쟁을 수행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 이미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세워 승리함으로써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바 있다. 또한 본문은 3:1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저자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에 전쟁이 오래되어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 라고 밝혔다. 이러한 진술을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을 회복함으로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진 것은 인본주의적인 왕 사울을 폐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만군의 여호와’가 동행하신 결과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는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여 이스라엘 사회에 두각을 나타내게 한 원인이었으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결정적인 힘이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누가 왕을 세우는가	날짜 : 1월 23일
찬양 통독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통일 찬송가 404장) 사무엘하 2장		
본문 내용	여호와와 지시를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간 다윗은 거기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반면에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습니다.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다윗의 신복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스루아의 세 아들 중 아사헬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뒤쫓습니다. 아브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이 자신을 뒤쫓자 그는 아사헬을 죽입니다. 이에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고, 아브넬은 멀리 도망갑니다. 요압은 복수로 이스보셋의 군사를 크게 이깁니다.		
생각해보기			
1	다윗의 유다왕 즉위(1-7) (1) 블레셋땅 시글락에 있던 다윗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물음 (2)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됨 (3)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사울을 장사 지낸 노고를 치하함 (4)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공의와 선을 행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높여 주신다.		
2	다윗가와 사울가의 전투(8-32) (1)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온 지파의왕이 됨 (2)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와 요압이 이끄는 유다 군사간의 전투 가운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 죽임을 당함 (3) 전투 결과 승패에 관계없이 유다 족속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 쓰라린 상처를 받고 동일한 슬픔을 겪음 (4) 하나님 백성간(공동체)의 분쟁은 서로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핵심 단어	2:5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 한글 성경은 본문을 본절 마지막에 위치시켜서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다윗의 말 중에서 본문이 제일 앞에 나온다. 이는 사울에게 행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행동이었음을 우선적으로 알리는 강조적 표현이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보낸 사자들로부터 본문의 선언을 가장 먼저 듣고 다윗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본문은 '너희가' 에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 '앗렘'과 '축복을 받다' 라는 뜻의 수동태 분사 '배루킴' 이 사용되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받을 축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와 축복을 우선적으로 밝히고 자신이 베풀 보상에 대해서 나중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베푸는 보상 역시 여호와와 축복 속에 포함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을 자신의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철저히 여호와 중심으로 판단했으며, 그에 대한 보상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 시행하는 일관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배반의 저편	날짜 : 1월 24일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통일 찬송가 460장)		
통독	사무엘하 3장		
본문 내용	긴 전쟁이 계속되면서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강해집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섯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첩 리스바의 문제로 이스보셋의 책망을 받고 다윗에게로 넘어옵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조건대로 다윗의 첫 부인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의 찬성을 얻어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열고, 아브넬은 충성을 서약합니다. 적군을 치고 돌아온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은 아브넬의 방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하고, 다윗 몰래 아브넬을 불러 그를 암살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연관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요압과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립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애통해할 것을 명령하고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짓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기			
1	다윗가의 번영과 사울가의 분열(1-11) (1) 다윗의 집은 점점 흥왕(興旺) 하는 반면, 사울의 집은 점차 몰락의 길을 걸음 (2)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고 이것이 결국 사울가의 몰락을 자초하게 됨 (3)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정은 날로 흥왕해 진다.		
2	아브넬 사건(12-21) (1) 이스보셋의 반발을 산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과 협상을 제의함 (2)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언약함 (3)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함 (4) 혹시라도 다윗이 요압을 시켜 아브넬을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백성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다윗은 아브넬을 위한 애가를 짓고 애도함 (5) 양갓음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핵심 단어	3:29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여다 -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과 그 집안에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다윗이 요압을 저주한 것은 단순히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이 개인적 복수에 의한 불의한 행동이었기 때 문만은 아니다. 이는 요압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이스라엘의 통일이라는 하 나님의 원대한 뜻을 아브넬을 살해함으로써 막으려 하는 사단적인 행위를 하였기 때 문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날짜 : 1월25일
찬양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통일 찬송가 395장)		
통독	사무엘하 4장		
본문 내용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이스보셋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놀랍니다. 이스보셋의 군장 레갑과 바아나는 낮잠을 자는 이스보셋을 죽여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은 이들의 행위를 악인의 행위로 규정하여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장사합니다.		
생각해보기			
1	이스보셋의 피살 (1) 이스보셋도 패역한 두 신하에 의해 암살을 당함 (2) 다윗은 이스보셋을 살해한 레갑과 바아나를 처형함 (3)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불의를 행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 행동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이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		
핵심 단어	4:11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이겠느냐’ - 본절은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아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장면이다. 이러한 본절은 ‘하물며’ 에 해당하는 ‘아프’로 시작된다. 이는 ‘또한’, ‘더욱’ 이란 뜻으로 접속사 ‘키’와 함께 관용적으로 쓰여서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는 수사 의문문의 뉘앙스를 갖는다. 한편 ‘악인’ 으로 번역된 ‘아나습 레와임’은 복수형으로서, 레갑과 바아나를 지칭하는 말이다. 반면에 이스보셋은 이들과 대조적으로 ‘의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다윗이 ‘이스보셋’ 을 의인으로 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의인’ 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어 아니라 ‘불법한 것을 행하지 않았던 자’ 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정적 용어이다. 즉 ‘무죄한 자’ 란 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다윗은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에서 왕국을 세운 일이 여호와 앞에서 정당한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결부시키고 있지 않다. 다만 림몬의 아들들의 행위와 이스보셋이 당한 일만을 비교하고 있을 뿐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